

낸드플래시 매출 100억달러 돌파

2005년 108억달러로 62.8% 급증 ... 휴대폰 내장메모리 1위 기대

2005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세계 낸드플래시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시장조사기관인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2005년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총 108억달러(MCP 포함)로 2004년 66억3500만달러보다 무려 62.8% 급증했다.

2005년 1/4분기 20억4500만달러에서 2/4분기 22억8100만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3/4분기 29억5900만달러, 4/4분기 35억1500만달러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낸드플래시 매출액은 2005년 100억달러 돌파에 이어 2006년 168억2000만달러로 55.7% 증가한 뒤 2007년에는 228억8100만달러로 200억달러선을 넘어서고 2009년 262억1000만달러까지 늘어나는 등 연평균 32%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디지털카메라가 전체의 46%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휴대폰(37%), 기타(14%), PDA(3%) 순이었으나 2006년에는 휴대폰이 65%로 디지털카메라(29%)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서플라이는 “2006년에는 모바일 시장의 핵심기기인 휴대폰용 메모리시장에서 낸드플래시가 노어플래시를 제치고 휴대폰 내장메모리의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대용량과 저장능력, 쓰기 속도가 월등해 USB드라이버, 디지털 카메라,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저장장치에 주로 쓰이는 반면, 읽기 속도가 늦은 것이 단점이며, 노어플래시는 읽기 속도가 뛰어나 휴대폰, TV, PC 등에 주로 장착돼왔으나 대용량화는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09>